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 '호남-제주 메가시티' 구상안 설명 “경제권 통합… 관광·해양프로젝트 발굴”

“기업·투자유치 함께… 내년 예산부터 공동 사업 반영”
전남·전북 ‘적극적’… 위성곤 당선인, 공식 반응 없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호남-제주 메가시티 구상은 행정 통합이 아닌 경제권 통합·강화이며, 공동구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제주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전북·광주·전남·제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해 인수

위원회 내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공동 영역과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호남-제주 메가시티는 행정 통합이 아니라 경제권을 통합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과 광주·전남, 제주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연대를 통해 경제와 산업을 함께 일으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남권 경제권 강화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관광·해양물류 협력을 꼽았다.

이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을 기반으로 서남권 경제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도 함께 추진하고 예산 과제와 입법 과제도 공동으로 발굴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과 해양 물류를 연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크루즈가 새만금신항이나 부안에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새만금과 제주를 연결하는 관광·해양 프로젝트를 발굴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광주·전남·제주 모두 메가시티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 영역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부터 공동 사업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이 호남-제주 메가시티에 적극 나서서 것과 달리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당선 이후 호남-제주 메가시티와 관련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지난 9일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도정 인수 작업과 정책공약 구체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꾸려졌다.

앞서 위 당선인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전북·전남 광주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와 함께 제주·전북·전남광주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제주와 전북 새만금, 전남광주의 해상풍력·태양광 역량을 연계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역사 교육 및 평화·인권 프로그램, 광역 관광상품 개발, 공동 체류 프로그램,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농수산물 물류 개선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정비 마무리 서귀포시, 2억3300만원 투입… 둘레길 전망대 설치

서귀포시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길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휴양림 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휴양객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이뤄졌으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2억 33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했던 데크 하부 철골 구조물을 교체하고, 이용객 통행이 잦아 마모가 진행된 데크 상판을 부분 교체해 숲길 이

용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붉은오름 둘레길에 신규 설치해 탐방객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노후화된 안내판도 교체해 휴양림 이용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는 오름 등반로, 해맞이 숲길을 품은 말차 오름 등반로, 데크로 이뤄진 무장애 나눔길을 포함한 산책로(숲길) 총 12.5km가 조성돼 있으며, 연간 10만명이 이용하는 제주의 대표 휴양림 중 하나다. 백금탁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시 가축분뇨 유출 막아라”

서귀포시-축산악취방지재단
8월까지 우사 야적퇴비 점검

서귀포시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분뇨 유출 예방을 위한 ‘우사 야적퇴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지역 내 우사 246개소와 공공수역 주변,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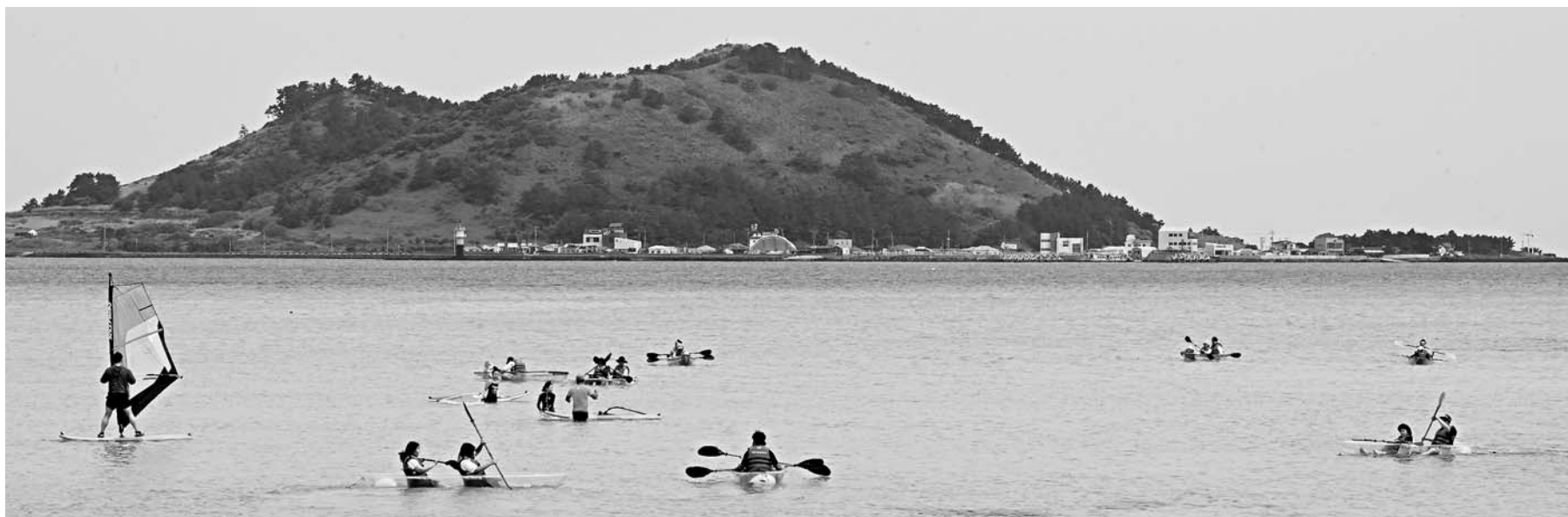
주요 점검사항은 ▷축사 주변 가축분뇨 및 퇴비 유출 여부 ▷퇴비사 외 장소에 가축분뇨(또는 퇴비) 보관 여부 ▷퇴비사 여유 공간 확보 여부 등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내용이다. 하천 주변과 농경지 인근 퇴비의 야적·방치, 공공수역

유출 행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선 개선명령 및 과태료(최대 100만원) 등 행정처분하고 공공수역 유출 또는 유출 우려 시에는 조치명령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우사를 대상으로 퇴비 적정 관리 지도·점검을 벌여 이중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13건(개선명령 5, 조치명령 2, 과태료 5, 고발 1)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방지재단을 활용해 우사 및 공공수역 주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현장을 확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6월 해수욕장 풍경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카약을 타며 6월 여름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서문시장 점포 3곳 입점자 모집 1층 2곳·2층 1곳… 선정 시 최대 10년간 영업 가능

제주시는 소상공인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문공설시장 내 빈 점포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3개 점포이며, 층별로는 1층 2개소와 2층 1개소다. 1층 점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

음식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이 가능하다. 2층 점포는 도·소매나 서비스 업종을 할 수 있으며, 1층과는 달리 음식점이나 기타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

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인 시민이다. 국제·지방세·세외 수입 제납이 없어야 하며 본인인 점포를 직접 상시 운영해야 한다. 신청은 1인 1개 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재 제주시 동 지역 내 공설시장인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실질적인 판매

활동이 아닌 사무실·창고·무인점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전화 064-728-2823)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7월 2일 공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점자가 가려진다. 최종 선정된 입점자는 7월 13일부터 최대 10년간 영업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본격 준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 체제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16-17일 메종 글래드 호텔 등 도내 일원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종목별 경기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다. 회의는 대회 준비 상황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체전기획단은 그동안 추진해 온 31개 종목별 경기장 배정 및 개보수 현황, 시·도 장애인선수단 수송차량 배차 계획, 선수단 숙소 내 맞춤형 경사로 설치 등 선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시설 편의 대책을 중점 브리핑한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무장애 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자원 화합으로써 관광 제주의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 오소범기자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인파고정판

인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